성보로 보는 통도사의 역사와 위상

불교중앙박물관 2018 특별전

'불보종찰, 통도사를 담아내다'

7월 3일(화) ~ 9월 30일(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보종찰 통도사의 성보들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전시된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오심)은 7월 3일(화) 개막식(오후 3시)을 시작으로 9월 30일(일)까지 '불보종찰, 통도사를 담아내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교중앙박물관이 기획한 첫 번째 '교구본사전'으로, 불화와 불상, 공예품 등 통도사가 소장하고 있는 3만여 점의 성보 중 보물 7건, 경남유형문화재 15건을 포함하여 총 107건의 성보문화재 161점을 전시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이 교구본사전을 기획한 의도는 각 교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소장하고 있는 성보문화재를 해당 지역을 벗어나 문화·예술·관광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전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불지종가, 국지대찰로 불리는 양산 통도사는 보다 많은 성보문화재를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찰로 교구본사전의 첫 번째 사찰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이번 전시에는 통도사의 유구한 역사를 비롯해 불보종찰임을 보여주는 금강계단의 조성유래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불상과 경전, 삼보에 바치는 보물급의 공양구와 장엄구, 창건주인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이어 수행한 고승들의 유물과 업적이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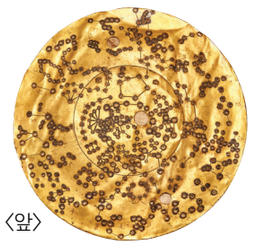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됐다. 1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은 '영산전 팔상도-비람강생(보물 제1041호·조선 1775)'을 비롯해 통도사의 창건과 역사를 적고 있는 '통도사사적약록(조선 1642년)',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의 내력과 과정을 적고 있는 '석가여래영골사리부도비(탁본, 경남 유형문화재 제544호·조선 1706년) 등 불보종찰의 면면을 보여주는 성보들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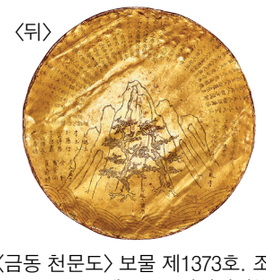
통도사 성보 최초 서울 展
불화·불상·공예·서적 등
총 161점 전시 최대 규모
통도사 역사·위상 한 눈에
기획 '교구본사전' 첫 번째

2부, '통도사에 모셔진 부처님과 그 말씀'은 '묘법연화경 권3~4(보물 제1240호·조선 1470년)', '대반열반경(조선 1899년)', '대승기신론소 경판 권 상1·2(경남 유형문화재 제100호·조선 1681년)' 등 경전과 관련된 성보들을 모았다. 자장율사가 643년에 신라에 귀국할 때 불사리와 함께 대장경도 함께 모셔와 통도사에 봉안했다는 창건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통도사는 경전을 소중히 생각하고 보존해 온 종찰이다.


〈화엄불도〉 보물 제1352호. 조선 1811 / 검은 비단 바탕에 금선으로 채색한 선묘화. 〈화엄경〉의 내용과 구성을 알기 쉽게 그린 변상도.


〈청동 은입사 향완〉 보물 제334호. 고려 / 전면의 정교한 은입사와 사실적으로 표현된 문양 사이의 음각이 돋보인다.


〈앞〉


〈뒤〉
〈금동 천문도〉 보물 제1373호. 조선 1652 / 국보 제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 탁본을 근대에 후쇄한 것.

통도사성보박물관은 불교회화 전문박물관으로 600여 점이 넘는 불교회화를 소장하고 있다. 불화는 일반 대중에게 불교의 교리를 쉽게 전달하여 불교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전법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불전을 장엄하고, 불교의식을 계승해 온 공예품들 역시 전법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3부, '성보로 전법하다'에서는 '화엄불도(보물 제1352호·조선 1811년)', '사명암 감로도(경남 문화재자료 제315호·일제강점기 1917년)', '청동 은입사 향완(부물 제334호·고려)', '금동 천문도(보물 제1373호·조선 1652년)' 등 불법을 전승하기 위한 불화와 공예품들이 전시된다.

4부, '멈추지 않은 수행'에서는 '호계첩(일제강점기 1932년)', '가사(조선 후기)', '작법귀감(조선 후기)'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출가수행자와 관련된 성보들을 모았다.

계율을 근본으로 삼고 금강계단을 세워 국민을 교화했던 창건주 자장율사를 비롯해 금강계단의 전통성과 상징성을 더욱 확고히 했던 고려시대 지공 스님, 사찰을 중창하여 대가람의 면모를 재정비했던 조선시대 우운대사 등 통도사에는 많은 선지식이 머물렀다. 5부, '자장율사, 그 후 통도사의 스님들'에서는 '자장율사 진영(경남 유형문화재 제276호·조선 1804년)', '설송당 부도 사리구(조선 1754년)', '벽안스님필묵서(근대)' 등 통도사 스님들과 관련된 성보들을 모았다.

통도사는 646년 자장율사가 금강계단을 쌓아 당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계율의 근본 도량이 되었고, 신라의 승단을 체계화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고려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진신사리를 찾았고, 14세기에 여러 전각들이 지어지면서 오늘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선시대의 통도사는 숭유억불 정책 속에서도 법등을 이어왔다. 임진왜란으로 가람의 대부분이 전소되기도 했고, 금강계단이 파괴되고 사리마저 약탈당하기에 이른다. 다행히 사리를 되찾고 계단을 다시 세웠으며, 전각을 중건하여 전란의 아픔을 수습했다. 이후 통도사는 여러 번의 중창을 거치며 현재의 불보종찰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국보나 보물 등 유형의 성보와 더불어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이어온 통도사 스님들의 발자취 역시 또 다른 성보임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번 전시는 앞서 많은 후학들을 이끌며 문화재를 보존·관리해온 근현대 스님들의 노력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부대중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양산 통도사는 조계종 15교구 본사로 1373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적멸보궁이다. 불화를 비롯해 불상과 공예, 서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4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통도사의 장구한 역사와 위상, 그리고 불교의 깊은 문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3일(화) 오후 3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배우 이원종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전통공예명품전 '명장과 명인의 아름다운 동행'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7월 22일까지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와 (재)김포문화재단은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제38회 전통공예명품전 '명장과 명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한다.

1979년 전통공예대전으로 시작해 올해 3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통공예명품전'은 '명장과 명인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명장과 명인의 기술로 빚어낸 전승공예품을 전시하여 우리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김경미 作,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사경변상도.

우리나라 공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회원들이 함께 하는 이번 전시는 이 시대 최고의 장인들이 1년 간 땀과 열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주요 전시 작품은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사경 변상도(김경미) △은칠보 염주(김성희) △동자(박찬수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공양(송근영) △청동은입사포륵수금문정병(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곽홍찬) △은장연화문낙죽장도(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박종군) △폐백동구리(국가무형문화재 제103호 완초장 이상재) △초중도함 세트(옻칠 박만순) △숙종 상존호 옥보(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김성운) △통영 양태(갓일 이수자 도국희) 등이다.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는 "전통적 기법에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수준 높은 이번 전시 작품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통 공예의 맥을 이어가려는 장인들의 땀과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고 이번 전시의 의미와 가치를 밝혔다. 문의 / 김포문화재단(031-996-7342) 박재완 기자

지홍 스님 書圖 개인전

서울 동덕아트갤러리

6월 27일~7월 3일

글 쓰는 일을 아름다운 정토와 수행의 길을 가는 방편으로 여기며 정진해온 지홍 종사(태고종 청련사)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동덕아트갤러리(서울 종로구 관훈동)에서 서도 개인전을 열었다.

선종에서 '불립문자'가 절집의 가풍이라고 하지만 말과 글이 아니면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전할 수 있었을까. 지묵으로 이루어진 〈팔만대장경〉이 전해지고 선조사의 오도송이 승방에 걸려 후학을 경책하고 길을 열어주고 있으니 글로서 눈을 어지럽히는 일이 전혀 부질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글쓰기의 일가를 이룬 대가들의 선필 일 획 일 획에서 느껴지는 전율과 〈금강경〉을 이루는 5천여 글자의 수많은 일 획 가운데 한 획을 어겨서 전체를 버려야 하는 일은 정녕 예(藝)와 도(道)의 길이 아닐 수 없기에 글 쓰는 일을 서예, 혹은 서도라 부르는 까닭일 것이다.


지혜명조, 지혜로 밝게 비추어라

이번 전시에는 〈반야심경〉 등 지홍 스님이 그 동안 문자 또한 불사(佛事)의 일익임을 생각하며 적어온 서예 작품 80여 점이 전시된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지홍 스님은 평생 청련사 수호와 교화에 힘써 오셨습니다. 불화와 단청에도 일가견을 갖고 있는 지홍 스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서예를 해왔으며, 그의 서예 실력은 가히 중국의 서예 대가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서도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 지홍 스님과 그의 서예를 찬탄했다. 박재완 기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